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91. 바벨론의 멸망(1)

2014. 09. 2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8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애청자들께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문인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13-905-3641입니다.

[계18:4~8]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실상을 폭로하는 기별을 전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크게 외치는 소리에 응하여 하늘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하는 호소를 말하고 시간을 마쳤습니다. 바벨론의 죄상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바벨론에게 그가 행한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5절에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바벨론의 불의입니다. 여러 번 말한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롬1:18)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입니다.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의 핵심인데 이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짓인가 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망에 묶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대리자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바벨론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사망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18:6~8]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바벨론에 있으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한자말에 옥석구분(玉石俱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과 돌이 함께 타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집단을 소탕할 때에 그들 중에 억지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에서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잘 사용하는 말이 옥석구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바로 옥석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바벨론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지시인지 본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누구에게 지시했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당면한 상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여기 기록된 대로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예,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에 동형형벌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벌하시는 것입니까?

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지 말고 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후3:6에 그렇게 말했지요.

[고후3: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 의문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라마”인데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은 “프뉴마”인데 신약에서 주로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문자와 대조적으로 영이라고 한 것은 내용과 의미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옛날 중국 어느 나라에 재를 길 가에 버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그 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쉽고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백성들이 쉬운 그것을 실행하여 무거운 형벌에 이르지 말라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 대답이 아닙니까? 공자는 그 법을 문자로 읽지 않고 의도를 읽은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많은 끔찍하게 느껴지는 문구들은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고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 구절들은 다 그런 결과에 이를 일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사랑의 권고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기록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런 결과를 스스로 당하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으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망으로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식이 없어지면 채벌의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는 동안 느끼는 고통의 크기를 배나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때까지 그가 고통을 준 대상들 보다 더 오래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재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가 끝난 후의 사건이잖아요. 다섯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첫 재앙의 종기로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했지요. 죽음이 쉽게 찾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이 큽니다. 치유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배나 갚아준다는 말은 은혜가 없어진 때에 바벨론이 재앙에 노출 되면 은혜가 있을 기간에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위적인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을 거둔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작위적인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저지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은혜의 손길을 거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1:24~31]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씀은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의 사실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라아그”인데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절을 갚는다는 말을 무섭게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 은혜 기간이 끝난 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은혜의 손길을 거둔 것을 표현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도 은혜를 거절한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겠습니다?

답: 당연하지요. 이 16~19장은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은혜를 끝까지 완전히 거절한 존재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다음 구절을 봅시다.

[계18:7,8]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바벨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계13장에 그 사실을 기록했지요.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역전이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 그들과 다른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은혜가 역사하는 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배나 갚아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동안 자기를 여황이라고 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왕의 왕이라고 했지요. 성경의 하나님의 칭호를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47:7~11]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 한 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계18장 사건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에게 적용되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47:9~11이 계18:8절에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되었지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사야는 한 날에 홀연히 망한다고 했지요. 계시록은 하루 동안에 망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루를 예언적 상징인 하루로 생각해서 15일 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또 삽시간에 망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지요. 그래서 10절에는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뜻이지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한자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이사야 40:10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라고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려주심을 지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돌보시던 그 손과 팔을 거두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삽시간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임하고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망, 애통, 흉년을 일일이 해

석할 필요가 없지요. 망하는 실상을 여러 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4. 예, 그렇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바벨론과 무역하던 자들의 탄식이 기록되었네요. 그들이 탄식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권력의 근원이 무너지기 때문이겠지요?
답: 그렇지요. 9,10절을 읽어봅시다.

[계18:9,10]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왕들은 17장에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일심으로 바벨론에게 주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에게 준 것은 재앙이 내릴 때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섯째 재앙 때에 더러운 영들의 이적에 혹하여 더욱 합심하여 짐승과 음녀로 표상된 큰 성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지요. 그런데 이제 어린양, 곧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17:14에 어린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이길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17장 16절에는 이 왕들과 짐승이 음녀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을 질러서 바벨론이 불타게 되었는데, 그 타는 광경을 보니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합작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는데, 결과는 너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이니까 속도 상하고 이래저래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이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이 어찌 그리 삽시간에 망하는가. 네 심판이 그리도 속히 집행이 되는가.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이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것이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는 달리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을 설명하면서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알았기 때문이고 망하는데 무슨 상징성이 없지요. 이것은 은혜 기간이 지나간 후에 일곱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의 중심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와 연합했던 세력들의 탄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까지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의 탄식이고 그 다음은 경제적 세력을 가진 자들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5.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와 거래하던 모든 세력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상태를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9절 10절은 정치권이 함께 무너지게 된 것을 지적하고 11~19절은 경제계가 함께 무너지게 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맞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계18:11~19]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 바벨론

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장사꾼들이 우는 광경을 기록합니다. 우는 이유를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상품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모두 28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의 신분을 18:23절에서 땅의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황으로 앉은 자의 측근들이지요.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어미가 여황이고 이들을 왕족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여황의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과 거래를 했는데, 바벨론의 상품을 사기도 하고 그들의 상품을 팔기도 했겠지요. 그래야 무역이 되는 것이지요. 이 무역 물목을 보면 어떤 것을 사고팔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13절이 상품 목록인데 다시 한 번 봅시다.

[계18:12,13]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묶어보면 먼저 보물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다음은 의류입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셋째는 그릇입니다.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넷째는 향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다섯째는 양식입니다.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여섯째는 가축입니다. 소와 양과 말. 마지막 일곱째는 부리는 것들입니다.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상품 목록은 에스겔 27:5~24에 기록된 두로에 대한 애가에 나오는 물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사치스러운 물건들이지요. 여기 열거된 것들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물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석, 의류, 그릇, 향료, 양식, 가축, 사람-부리는 것들. 곧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상고를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의 왕들이 이 바벨론과 무역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Dr. Larry Bates라는 분이 쓴 “The New Economic Disorder(새 경제 혼란)”이라는 책에서 “나는 로마교회의 경제력은, 사단이 새 세계 질서 속에 인류를 노예화시키려는 자기의 전쟁 계획안에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본다.”(51p.)고 했는데요, 그는 “만일 당신에게 질문하기를 Vatican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당신이 대답하겠느냐? 미국 CIA에서 집필한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vatican의 주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52p.)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글은 바벨론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읽혀집니다. 계18장의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말한 대로 7재앙 때에 특히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과 관련하여 주신 예언이 아닙니까. 17장이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내려진 판단이라고 하면 18장은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내려진 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를 누리고 그 경제력으로 세상을 경제적으로 좌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경제권을 박탈할 정도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계시해준 내용입니다.

6. 그렇군요. 레리 베이츠 박사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 특히 미국 CIA 가 분류한 바티칸의 주요산업이 금융업이라고 한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말한 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네요. 17장에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18장에서는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답: 예, 그러니까 왕들과 상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왕들은 바벨론을 벌거벗기고 불 지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성이 풀리지 않지요. 그래도 한 때 주공(主公)이었는데, 그것을 불사르게 했지만 속이 상하지요. 이래저래 우는 것입니다. 상고들 이야기는 오늘 시작하기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생활 전반에 수요가 되는 상품들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애통하며 그들의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우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인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물질은 자지가 지금 사용하는 것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자기 돈이 아니지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물질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도구(道具)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물질을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차 복이 되지만 물질을 소유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 허락된 날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7.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이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바벨론의 정체와 실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군림하여 성경진리를 왜곡함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한 이 존재를 잘 알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무리 가운에 굳게 서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